

GTX 개통, 국민과 함께 '하나하나' 꼼꼼하게 점검

- 19일부터 3일간 GTX-A 수서~동탄 구간 '국민참여 안전점검'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-A '수서~동탄'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(3.20 제외)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'국민참여 안전점검'을 실시한다.
 - 이번 '국민참여 안전점검'은 운영사 주관으로 2차례 시행했던 '이용자 현장점검*'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참가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공개모집(2.26~3.8) 방식을 통해 선발됐다.
 - * 교통전문가 현장점검(3.7), 인근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현장점검(3.14)
- 이번 '국민참여 안전점검'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GTX 수서역사, GTX 성남역사 등 준공역사의 시설을 점검한다. GTX-A 철도 차량 시승체험 활동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사항 점검도 중점 실시한다.
 - 점검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신속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.
-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"국민참여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담당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철저히 이용객의 입장에서, 국민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것"이라면서,
 - "GTX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, 점검에 참여해 주실 국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881)
			주무관	안남현 (044-201-3978)

□ **추진배경**

-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, 국민의 의견을 현장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GTX 개통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

□ **추진방안**

- ‘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’ 제41조 등에 따라 철도운영자(SG레일㈜)가 시행하는 ‘이용자 현장점검’과 연계하여,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‘국민참여 안전점검’ 추가 확대 시행

구 분	이용자 점검	국민참여 안전점검
관련근거	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1조	해당없음 (추가 시행)
시행주체	철도운영자(SG레일㈜)	국가철도공단
점검자	교통전문가 및 업무담당자, 교통약자 및 일반이용자	일반국민(희망자), GTX 국민참여단 등
점검일자	‘24.3.7(목), ‘24.3.18(목)	‘24.3.19(화), ‘24.3.21(목), ‘24.3.22(금)

<세부점검 방안>

- ① (동탄역) 대합실에 집결하여 점검 전 안전교육 시행, 동탄역 승강장(PSD 포함), 승강설비 등 역사 시설 점검 후 GTX-A 열차 탑승하여 이동
- ② (성남역) 성남역 정차 후 하차하여 승강장(PSD포함), 대합실, 환승시설, 승강설비 등 역사 시설 점검 후 GTX-A 열차 탑승하여 이동
- ③ (수서역) 수서역(GTX) 도착 후 하차하여 승강장(PSD포함), 대합실, 환승통로, 승강설비 등 역사 시설 점검
- ④ (열차운행) GTX-A 열차 탑승하여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하며 열차운행 중 소음, 진동 등 운행상태 점검
* 점검 완료 후 GTX 홍보관 체험 활동도 병행 추진